

지역 소식통

부안군, 신동진쌀 TV홈쇼핑 전국 판매

부안군이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나섰다.

군은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계화농업협동조합이 선정돼 방송 송출료 및 영상제작비용을 지원받아 천년의 숨겨진 신동진쌀 판매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쇼핑 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4시 50분부터 공영홈쇼핑에서 50분간 방송되며 신동진쌀 10kg+10kg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18% 할인된 5만 900원에 판매한다.

신동진쌀은 계화간척지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미세달이 풍부한 해풍, 오염 없는 무기질 토양으로 재배된 대한민국 대표쌀로 다른 품종에 비해 쌀알이 크고 굵어 밥알이 부스르리지 않고 미질이 좋아 윤기와 찰기가 흐르며 밥맛이 일품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장

전북 고창군이 중·소농과 고품질 농산물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2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는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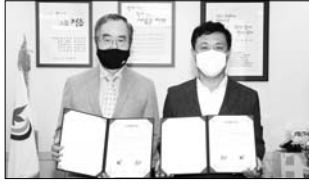
이곳 직거래 장터는 농업회사법인 명품고창(대표 박수영)에서 운영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첨단산업단지 20억 투자 '확정'

정읍시, 에스아이피산업 10여 명 일자리 창출·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합성 수지관 전문 제조업체인 (주)에스아이피산업(대표 김홍기)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주)에스아이피산업은 25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홍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에스아이피산업 정읍공장 확장 증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에스아이피산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896㎡(1,179평)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장 확장과 함께 생산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또, 회사 운영에 따른 10여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주)에스아이피산업은 1968년 창립한 우리나라 합성수지 파이프의 선구자인 신우산업(주)(대표 김홍기, 경기도 김포 소재)의 자회사다.

지난해 4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첨단과학산업단지 7,847㎡(2,373평)의 부지에 1,060㎡(320평) 규모로 공장을 준공했다.

(주)에스아이피산업은 앞으로 새만금 개발 등에 따라 파이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김홍기 대표는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우리나라 합성수지 파이프의 선구자인 신우산업(주)(대표 김홍기, 경기도 김포 소재)의 자회사다.

지난해 4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첨단과학산업단지 7,847㎡(2,373평)의 부지에 1,060㎡(320평) 규모로 공장을 준공했다.

(주)에스아이피산업은 앞으로 새만금 개발 등에 따라 파이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김홍기 대표는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25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비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최선"

심덕섭 고창군수, 간부회의 주재

심덕섭 고창군수가 25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비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말사이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잇따라 고창에서 열리는 가운데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서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숙박업·요식업·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의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매력적인 휴가지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최근 국회의 후반기 상임위 구성 완료에 따라 지역현안 대응 노력도 주문했다.

또한 심 군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배정돼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등 현안해결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각 부서는 보좌관들과 상시 연락해 현안 설명 활동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고창군문화관광재단 혁신방안', '고창갯벌생태탐방로 홍보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주민 호평

상반기 500여건 해결

"회벽에서 물이 새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해충이 들어올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주로 가정 내 차단기·배선 수리, 수도·수전 교체, 문고리·환풍기 교체 등 작지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해 준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한동안 긴장된 지역사회 분위기에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반기 동안 500여건의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했다.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서 각종 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충망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방충망에 찢김, 구멍 등이 발생했지만

혼자 힘으로 보수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생활 밀접 현안 챙기기 만전 '강조'

이학수 시장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2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께서 일상을 불편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완화와 정읍천에 대한 빈틈없는 운영과 관리에 민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시민의 최대 휴식처인 정읍천 일대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많은 만큼 정읍천 풀베기와 잡목 제거, 쓰레기 수거 작업 등 환경정비를 통해 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읍면동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시 한번 단단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정읍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휴가철부터 추석 기간(8.1~9.15)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 및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은 식음료 페트병이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투명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 달리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자원으로 유색 페트병과 혼합해 배출하면 재생 원료의 품질 저하로 재활용률이 낮아진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생수·음료 등 내용물을 마시고 비운 뒤 행귀 라벨을 제거한 후 최대한 압

축해서 뚜껑을 닫아 버려야 한다.

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독주택, 상가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추석 귀성객에게도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정읍천 물놀이장, 칠보물레마루원지 등에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별도 배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상향반 1개 조와 기동반 2개 조를 편성해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적체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고 순도가 높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